

산촌생태마을 유형별 주민 보완 요구 및 기대 효과 분석

김성학 · 서정원 · 박영선* · 김종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 *마을디자인

An Analysis of Residents' Supplementation Demand and Expected Effect by Types of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Project

Kim, Seong Hak · Seo, Jeong Weon · Park, Young Sun* · Kim, Jong Ho

Div. Forest Recreation & Culture,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Village Design*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categorize mountain villages according to business expense investments and investigate residents' supplementation demands and differences between expected effects by the categories. For the study, 35 villages where are completely developed on and after 2007 were selected to consider fairness among local governments. Each village leader(the head of the village or the chairperson of the management committee) was conducted a survey from 2012 May to August and one copy of survey was eliminated from the study. The study is summarized into four results. First, the types of mountain villages were categorized as a type of mountain village practice(18), a type of life environment improvement(8) and a type of forestry income(8) according by the itemized reports of the business expense investments. Second, the result of F-test(One Way ANOVA) for the average analysis by types showed that 3 out of 6 demands for the operation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nd a supplementation necessity of the program was identifi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p < 0.01$ level. The necessity of forestry resources use and sprawling development prevention are also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ypes in $p < 0.05$ level. Third, F-test results from 7 questions of desired effects through mountain village creation project revealed that promotion and market security of forestry products and local patriotism instillation through a personal exchang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ypes in $p < 0.05$ level. Forth, the results of duplication benefits(the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projects and the village support programs with other departments) on the residents' development expectation found that when a village received a large number of projects, residents' expected effects were higher than other village residents where received relatively a small number of projects. However, the expected effects from the increasing quantities of projects were decreased.

Key words : Forestry Income, Expected Effect, Mountain Village Management, Improve Living Environment, Mountain Village Development Project

1. 서론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정책은 농촌지역의 절대적 낙후와 빈곤 해결을 위해 1958년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도입을 시작으로, 1960년대 후반까지 정책 도입단계, 1970년대의 확산단계, 1980년대의 정착단계 그리고 1990년대에

는 양적 팽창단계를 거쳐왔다(전준현 등, 2008). 현재 농촌개발정책에서의 산촌은 입지적으로 산간에 위치할 뿐 산업구조나 취업구조면에서 농촌과 비슷하여 농촌의 연장선상에서 농촌의 일부인 “산간농촌”으로 인식되어 왔다(유병일 등, 2003).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한 정책 방향 수립 및 사업 본격화로 산촌마을은 발전을 위해 산촌소득 증대, 정주의식 고취,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목표로 산촌진흥사업이 추진되었다(김종호, 1999; 김의경과 손호철, 1995; 신용호,

Corresponding author : Seo, Jeong Weon

Tel : 02-961-3815

E-mail : knight01@forest.go.kr

2006). 이후 다양한 산촌마을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산림청은 산촌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995년에서 2010년까지 산촌지역 마을 240개를 대상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9년 국무총리실 주관 “농산어촌 체험마을 실태조사”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마을운영의 비효율성으로 사업의 효과성도 떨어지며 효율적인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사후 관리의 지원부족과 지역주민의 내발적 참여부족으로 지속적인 발전 방향에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전준현 등, 2006). 이에 따라 산촌개발사업이 추진된 마을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파악과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한 인식 파악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운영·관리 측면의 대안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촌개발사업 후 주민들의 보완 요구 사항 및 지역적 차원에서 주민들이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 사업 유형별로 면밀히 살펴보고 산촌개발사업 운영·관리 방안 수립에 사업 유형별 인식 및 요구를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첫째,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산촌생태마을 조성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주민들이 인식하는 보완 요구 사항 파악을 통해 유형별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기대하는 효과에 대한 설문을 통해 산촌생태마을 조성 유형별 차이점과 기대효과의 항목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산촌마을개발 사업과 더불어 타부처 마을개발사업의 복수 수혜를 받은 마을 주민의 기대 심리에 나타나는 차이점을 살펴보고 운영·관리적 측면에서의 주민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과 기대효과 향상 방안을 모색하였다.

산촌개발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추진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추진 조성연도, 투자된 사업비, 규모, 인구 현황 등 2012년 산림청이 구축한 240개 산촌생태마을 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를 활용하였다. 실증 분석을 위한 사례의 선정은 광역자치단체별 균등 분배를 고려하여 35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참조).¹⁾ 각 마을별 현황자료 수집과 2012년 5월에서 8월까지 2인 1조로 구성된 조사팀이 마을 현장조사와 산촌생태마을 운영자(마을 이장 및 운영위원장)를 대상으로 하는

현지 대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산촌생태마을의 조성 목적 및 운영·관리를 고려하여 사업에 있어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 6개 항목과 사업으로 얻고 싶은 효과 7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5점 리커드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후 조사된 산촌생태마을의 투자된 사업비의 내역을 근거로 유형을 분류하고 주민설문을 통해 수집된 보완 필요 요구와 사업의 기대 효과에 대한 유형별 집단 평균 및 항목별 평균의 분석을 위해 SPSS 18.0 버전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된 표본 35부 중 설문의 충실도가 결여되는 1부를 제외한 34부를 이용해 분산의 동질성 검증 이후 F검증을 통해 집단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정부추진사업으로 진행된 마을정비 및 개발사업의 중복여부가 기대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업기간의 중복성과 내용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권역단위 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정보화마을 사업, 팜스테이마을 사업,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등 6개 사업 분야의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였다.

Table 1 조사 대상 산촌 마을

구분	대상 마을	빈도	비율
경기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남양주 수동면 수산리	4	11.4%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6	17.1%
충북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청원군 낭성면 호정리,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4	11.4%
충남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예산군 대술리 이티리,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4	11.4%
전북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4	11.4%
전남	장흥군 용산면 운주리, 곡성군 오곡면 봉조리,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보성군 곁백면 수남리	4	11.4%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5	14.3%
경남	고성군 개천면 나선리,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4	11.4%
합 계		35	100%

III. 마을 정비 및 조성 사업 내용 및 제도 고찰

1. 산촌생태마을 사업 및 관련 마을정비 및 조성사업 특징

가. 관련 마을정비 및 조성사업 내용 및 특징

정부 차원에서의 지역 개발 지원 사업은 1970년대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시대별 지역개발 사업의 시대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70년대 이전의 사업은 주택개량 및 기반시설 정비 등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획일적 사업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이후 80~90년대에는 권역별 특성화 사업으로 정주권, 오지, 도서지역 등 농촌정비 사업의 법제화를 통해 마을단위 사업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러서 물리적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 환경, 교육 등 상향식 방식으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곽경호와 서정원, 2011). 세부적으로는 농림부에서 추진된 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 체험마을,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가꾸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보화시범마을, 환경부의 자연생태 우수마을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산촌생태마을과의 내용적 유사성을 고려하여 2000년대 이후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마을단위 지역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특징이 유사한 사업들을 분류 및 지원 내용을 정리하였다(Table 2 참조).

사업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권역단위 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팜스테이,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등이 산촌생태마을에서 추구하고 있는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산촌 녹색체험시설 등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으로 추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내용 및 특징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산촌지역을 자원화 하여 소득을 올리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Table 2 정부부처별 마을단위 정비 및 조성사업

사업명	주관부서	근거법	사업 및 지원내용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농림부	농업농촌기본법	생활환경 정비, 주민 소득기반구축, 주민 역량 강화 2004년부터 176곳 이상 추진, 권역당 70억원 지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림부	농업농촌기본법	생활편의시설,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2002년부터 마을여건에 따라 1~3억 지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농림부	-	농업환경 오염 경감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지구당 10억원(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촌진흥청	농촌진흥법	농업농촌교육시설, 마을환경정비, 프로그램 개발 2002년부터 마을 개소 당 2억원 지원
어촌종합 개발사업	해양수산부	농어촌정비법	생산기반시설확충, 어업소득원 개발 권역당 35억 (160개 개발권역 설정)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행정자치부	-	체험프로그램 개발, 인재육성 등 소프트웨어 지원, 마을경관정비, 농외소득 개발 2002년부터 도별 1개소로 마을당 10억원 지원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행정자치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취락구조개선사업, 패키지마을조성 사업, 생활편의기반시설 확충 20세대 이상의 자연마을 지원
정보화 시범마을	행정자치부	정보격차 해소법	정보 인프라시설, 교육 콘텐츠 개발 2002년부터 도시, 농촌을 합해 20개 마을 육성
팜스테이	농협중앙회	-	참여 농가 5호 이상인 마을을 선정, 홍보, 교육지원 홈페이지 등록
자연생태 우수마을	환경부	-	자원순환형 생활양식과 생태복원 등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된 마을 (우수마을로 홍보)

* 주관부서는 사업진행당시의 정부부처 직제로 표기하였음

Table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의한 산촌마을 지원 근거 변화

구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이전 (2009.4 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이후 (2009.4 이후)
지원근거	산림기본법 제8조, 입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7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 제1호 (지역발전계정의 세출)
사업기간	3년 (1년 설계, 2년 조성)	-
지원조건	국비 70%, 지방비 30% (균특회계)	국비 70%, 지방비 30% (광특회계, 자부담포함)
실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	산촌생태마을 생산기반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	사후 관리 및 운영 관리 지원
지원규모	마을 규모에 따라 10~16억 지원	시·군 자율 편성

1995년부터 산림청 주도로 추진되었다(Table 3 참조). 2001년 「입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의 추진을 제도화하고 이를 근거로 2010년 말까지 240개의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였다. 상기 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인 산촌진흥정책 추진을 위해 산촌진흥지역을 지정하고 10년 단위 계획인 산촌진흥 기본계획(2007년 수립·시행)에 내용적 방향을 기준으로 하며 산림기본법 제8조와 입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29조에 근거하여 추진되었다. 이후 2007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산림청 주도로 추진되던 산촌생태마을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2010년부터 예산편성권이 농림수산식품부 및 행정안전부로 이관된 상태이다. 하지만 2010년까지 「산림기본법」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마련된 327,304백만원의 사업비가 240개 마을 조성에 집행되어 사업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운영·관리 부분에서의 재정지원 체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2. 산촌생태마을 유형 설정 및 분류

산촌마을의 유형화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종호 등(1997)은 개발대상 사업구역에 알맞도록 리단위 산촌마을 유형구분과 개발우선순위에 대한 분류, 산촌마을 유형에 따른 개발조건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를 기초로 개발 우선순위에 근거한 세부 내용으로 중심마을 20%, 주변마을 30%, 개발유보마을 50% 등으로 구분하고 개발 우선순위는 선정유형구분에서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최우선 개발마을 20%, 우선 개발마을 30%, 기타 마을 50% 등으로 분류하였다(김종호, 1998). 이후 산

림과학원(서정원 등, 2006)에는 59개 산촌개발마을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마을 개발의 우선순위에 근거한 산촌마을개발 유형을 휴양림 연계형, 산림 소득형, 농림어업 복합형, 종합 개발형 등 4개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 우선순위에 근거한 유형보다는 산림청에서 추진된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된 사업(산림청, 2010)의 운영·관리를 위한 유형 구분이 필요하며 운영·관리를 위한 유형구분을 위해 산촌생태마을의 내용적 특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산촌생태마을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생활환경 개선, 생산기반 조성, 산촌 녹색체험시설 등 크게 3가지 부분에서의 지원이 집중되었으며 사례별로 투자비용의 집중도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기 설정되어 있던 유형구분의 근거가 되는 개발 우선순위를 고려한 유형 구분 보다는 마을별 투자된 항목별로 체계화한 유형을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인 운영·관리의 효율적 대응에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근거가 되는 “산촌개발사업의 종류 및 내용”에 기초하여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산촌 녹색체험시설 등의 사업 내용에 따라 산촌생태마을의 유형을 분류하였다(Table 4 참조).²⁾

Table 4 산촌생태마을의 사업비 투자 내역에 근거한 유형 구분

유형 구분	구분 기준 (투자비 기준)
생활환경 개선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한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마을
생산 소득 마을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투자한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마을
산촌 체험 마을	산촌녹색체험시설에 투자한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마을

IV. 분석 결과

1.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유형별 분류

조사된 35개의 대상지를 사업비 투자 내역에 근거한 유형 구분을 실시한 결과 산촌체험형 19개소, 생활환경 개선형 8개소, 산림소득형 8개소 등으로 분류되었다 (Table 5 참조).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생활환경 개선형은 경기도가 가장 많은 3개소와 강원, 전북, 전남, 충북, 경북 등의 각 1개소씩 포함되었다. 생산소득형은 전남과 충북이 각 2개소, 경북, 강원, 충남, 경남 등이 1개소씩

분류되었다. 산촌체험형은 강원 4개소, 경북, 전북이 각 3개소, 충북, 충남, 경남이 각 2개소, 경기도가 1개소로 분류되었다.

2.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유형별 보완 필요 요구

운영·관리의 보완 요구 사항 6개 항목의 분산 동질성 검증과 F검증을 통해 집단간 유의적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을 도출하고 유형별 평균과 항목간 평균의 비교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운영·관리 측면에서의 요구사항을 살펴보았다.

Table 5 산촌생태마을 유형 분류

유형 구분	대상마을	투자 사업비 (백만원)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 조성	녹색 체험시설	기타
생활 환경 개선형 마을 (8개)	경기 여주군 금사면 장흥리	817	284	299	50
	강원 춘천시 북산면 부귀리	711	521	148	83
	전북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526	513	480	50
	전남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694	590	179	-
	충북 보은군 산외면 대원리	410	301	188	148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고송리	734	27	627	74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1,103	322	-	37
	경북 김천시 대항면 주례리	1,114	-	-	142
생산 소득형 마을 (8개)	전남 장흥군 용산읍 운주리	529	871	-	63
	경북 영양군 수비읍 수하1리	188	623	580	72
	강원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	28	1,311	231	102
	충남 예산군 대술면 이티리	225	763	-	266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	631	653	-	-
	충북 청원군 낭성면 호정리	94	651	518	-
	충북 충주시 소태면 덕은리	143	769	288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456	656	300	-
산촌 체험형 마을 (18개)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1리	137	603	660	64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	455	804	25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2리	-	40	517	843
	전남 곡성군 오곡명 봉조리	129	512	822	-
	충남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35	170	1,150	102
	충북 진천군 백곡면 명암리	86	38	1,276	62
	강원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25	51	1,124	53
	경북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22	100	869	54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마령리	425	435	450	90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	231	125	298	390
	충북 부여군 은산면 거전리	54	-	986	54
	경기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282	113	583	88
	경남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133	51	1,216	-
	경남 고성군 개천면 나선리	58	202	785	-
	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	156	130	837	131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장항리	84	213	565	388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250	30	920	83
	경남 합천군 가야면 야천리	23	285	936	-
전북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319	313	761	-	

설문 조사된 요구사항 6개 항목을 집행된 사업비 내역에 근거한 유형별로 구분하고 항목간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6 참조).

립소득형 사업에서의 산림자원 활용이 다른 개발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 및 난개발방지 필요성 항목은 생활환

Table 6 산촌생태마을 사업 보완 필요 요구사항

조사 항목		유형별 응답 평균			전체 평균	분산 동질성 검증		분산분석	
		산촌 체험형 (N=18)	생활환경 개선형 (N=8)	산림 소득형 (N=8)		Levene 통계량	유의 확률	F값	유의 확률
귀농귀촌에 의한 인력수급 필요성	평균	3.22	3.88	2.75	3.26	1.796	0.183	1.253	0.300
	표준편차	(1.5168)	(0.9910)	(1.5811)	(1.4420)				
기존시설 리모델링 필요성	평균	3.56	4.13	3.63	3.71	0.050	0.952	0.701	0.504
	표준편차	(1.1490)	(1.1260)	(1.1877)	(1.1423)				
산림자원 활용 필요성	평균	4.56	4.25	3.25	4.18	2.334	0.113	5.364	0.010*
	표준편차	(0.7838)	(0.8864)	(1.2817)	(1.0580)				
자연환경보전 및 난개발방지 필요성	평균	3.56	4.13	2.38	3.41	2.146	0.134	4.907	0.014*
	표준편차	(1.2472)	(1.3562)	(0.5176)	(1.2820)				
프로그램 개발 보완 필요성	평균	4.28	3.00	3.38	3.76	0.805	0.456	5.995	0.006**
	표준편차	(1.0178)	(0.7559)	(0.9161)	(1.0748)				
주민의식 개혁 및 역량강화 필요성	평균	3.94	4.00	4.12	4.00	8.003	0.002	-	-
	표준편차	(1.2590)	(0.5345)	(0.6409)	(0.9847)				
유형별 평균		3.85	3.90	3.25	3.72	-	-	-	-

* p<0.05, ** p<0.01

가. 유형별 보완 필요 요구 분석

6개 항목의 분산 동질성 검증 결과 집단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의 유의확률 0.05보다 큰 항목은 주민의식 개혁 및 역량강화 필요성을 제외한 5개 항목으로 도출되어 집단간 분산이 동질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분산이 동질한 5개 항목에 대한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산림자원 활용 필요성, 자연환경보전 및 난개발방지 필요성 등은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프로그램 개발 보완 필요성 등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여 조사된 6개 항목중 3개 항목이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조사된 귀농귀촌에 의한 인력수급 필요성이나 기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필요성은 사업비 집행 내역에 기준한 유형 구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가 유의한 유형별 응답 평균을 비교 분석해보면 산림자원 활용 필요성의 경우 산촌체험형이 4.56으로 가장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으며 생활환경 개선형은 4.25, 산림소득형은 3.25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해석해보면 산촌체험형의 경우 지역의 산림자원이 중심으로 특성화가 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산림자원의 활용이 다른 유형에 비해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3.25점으로 산림소득형이 다른 유형의 평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요구를 보이고 있는 결과는 산

경개선형이 4.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촌체험형이 3.56, 산림소득형은 2.38 등으로 나타났다. 생활환경 개선형의 유형에서 자연환경보전 및 난개발 방지에 대한 가장 높은 요구도를 보이는 결과의 원인을 유추해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생활환경 개선형 사업에 있어 지역의 환경적 변화 및 난개발 방지는 다른 항목에 비해 부정적으로 민감한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산림소득형 사업은 자연환경 보전 및 난개발 방지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개발 보완 요구 항목의 평균 분석 결과 산촌 체험형이 4.28으로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 산림소득형 3.38점, 생활환경개선형 3.00점의 결과를 보였다. 가장 높은 요구를 보이고 있는 산촌 체험형의 경우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있어 하드웨어 사업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보완 필요 요구사항 항목간 평균 및 유형별 평균 분석

조사된 항목의 요구도가 높은 상위 순으로 항목간 평균을 살펴보면 산림자원 활용 필요성이 가장 높은 4.18 점, 주민의식 개혁 및 역량강화 필요성 4.00, 프로그램 개발 보완 필요성 3.72, 기존시설 리모델링 필요성 3.71

Table 7 산촌생태마을 사업으로 얻고 싶은 효과

조사 항목	유형별 응답 평균			전체 평균	분산 동질성 검증		분산분석	
	산촌 체험형 (N=18)	생활환경 개선형 (N=8)	산림 소득형 (N=8)		Levene 통계량	유의 확률	F값	유의 확률
농산물홍보 및 판매/판로 확보	평균	4.67	4.13	3.63	2.710	0.082	5.215	0.011*
	표준편차	(0.5940)	(0.8345)	(1.0607)				
농업농촌 가치홍보 소비자 교육	평균	3.72	3.38	3.50	0.144	0.866	0.494	0.615
	표준편차	(0.8948)	(0.7440)	(0.9258)				
인적 교류를 통한 애향심 고취	평균	3.72	4.25	2.75	1.627	0.213	3.987	0.029*
	표준편차	(1.1785)	(0.7071)	(1.1650)				
숙박, 음식판매를 통한 소득 증대	평균	4.56	4.38	4.25	0.366	0.696	0.440	0.648
	표준편차	(0.7048)	(0.7440)	(1.0351)				
산림을 활용한 소득 증대	평균	4.33	4.13	3.75	0.346	0.710	0.632	0.538
	표준편차	(1.1882)	(0.9910)	(1.4880)				
귀농귀촌에 의한 인구 유입	평균	3.22	3.50	3.63	0.617	0.546	0.305	0.739
	표준편차	(1.3086)	(1.0690)	(1.5060)				
도시의 자본 유치	평균	2.94	2.63	2.12	0.084	0.920	1.123	0.338
	표준편차	(1.3048)	(1.3025)	(1.2464)				
유형별 평균		3.88	3.77	3.38	-	-	-	-

* p<0.05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가장 높은 요구사항을 보이고 있는 산림자원 활용 필요성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산촌마을에 최적화된 산림활용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되고 있지 않음에 기인하여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의 필요성은 산촌생태마을의 유형에 상관없이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주민 의식 개혁 및 역량 강화 또한 사업의 운영·관리를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연환경보전 및 난개발방지의 필요성을 가장 낮게 응답하고 있는 결과를 볼 때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지역의 환경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귀농귀촌에 의한 인력수급 부본에 있어 정주민의 증가에 대한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생활환경 개선형의 보완 필요 요구가 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산림소득형은 3.1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항목들의 구성에서 낮은 점수가 가지는 의미를 만족도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생활환경 개선형 사업과 산촌체험형 사업이 산림소득형에 비해 상대적 만족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으로 얻고 싶은 효과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고 싶은 효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설문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의 목적을 고려하여 7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설문하였다. 운영·관리의 보완 요구 사항에서의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항목의 분산 동질성 검증과 F검증을 통해 집단간 유의적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을 도출하고 유형별 평균과 항목간 평균의 비교 분석을 통해 사업을 통한 얻고 싶은 효과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설문 조사된 효과 기대를 조사 항목별 응답 평균과 산촌생태마을 유형별 응답 평균은 Table 7과 같다.

가. 유형별 사업 기대 효과 분석

7개 항목의 분산 동질성 검증 결과 집단간 분산이 같다는 귀무가설의 유의확률 0.05보다 모두 큰 것으로 도출되어 7개 항목의 집단간 분산은 동질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7개 항목 전체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농산물홍보 및 판매/판로 확보, 인적 교류를 통한 애향심 고취 등의 2개 항목이 P<0.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나머지 5개 항목은 사업비 집행 내역에 기준한 유형 구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2개 항목에 대한 유형별 평균을 살펴보면 먼저 농산물 홍보 및 판매/판로

확보의 경우 산촌 체험형이 4.67점으로 가장 높고, 생활환경 개선형이 4.13, 산림 소득형이 3.63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실제 산촌체험형의 경우 농산물홍보 및 판매 판로에 확보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지만 주민들은 소득증대를 위해 판매 및 판로의 확보를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매우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면 산림소득형의 경우는 투자된 사업으로 인해 일정부분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요구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 교류를 통한 애향심 고취에 대한 기대 효과는 생활환경 개선형이 4.25점으로 가장 높고 산촌체험형 3.72점, 산림소득형이 2.75점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생활환경 개선형은 마을 정주환경 정비 및 개선이 인적 교류 및 애향심 향상에 긍정적인 기대심리를 높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적으로 산림소득형은 인적 교류 측면에서의 기대 수준을 낮게 응답하고 있는 결과는 임산물 생산을 통한 외부 판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업 기대 효과 세부 항목의 유형간 비교 분석

조사 항목별 세부 평가 결과를 항목별로 분석해보면 숙박, 음식판매를 통한 소득 증대(4.44), 농산물홍보 및 판매/판로 확보(4.30), 산림을 활용한 소득 증대(4.15) 등 7개 조사 항목 중 상위 3순위가 모두 소득과 관련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촌생태마을의 조성 유형과 상관없이 산촌생태마을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소득 창출을 가장 높게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 농업농촌 가치 홍보 소비자 교육(3.59점)은 산촌체험형의 경우 직접적으로 도시민 유치에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적 측면에서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추진된 마을의 경우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귀농귀촌에 의한 인구 유입은 항목 평균이 3.38점으로 조사된 7개 항목 중 하위에서 2번째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유입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대 또한 낮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자본 유치에 대한 기대 효과의 항목 평균은 2.68점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조사된 산촌생태마을의 조성 완료 후 평균 운영 연도가 3.9년임을 감안해 볼 때 산촌생태마을 사업에 따른 도시자본의 유치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며 이로 인해 향후 기대하는 수준도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4.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 외 정부 지원 마을사업 중복에 의한 주민 기대 효과

조사된 30개 마을은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조성 사업 이외에 최소 1개에서 많게는 6개 이상의 타부처 마을 정비 및 조성사업의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타부처 마을정비 및 조성사업 중 운영·관리 및 사업 후 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6개의 사업의 중복여부가 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 이외에 지원된 사업의 개수에 따라 1~2개 1그룹, 3~4개 2그룹, 5~6개 3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Table 8 참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그룹 3.49점, 2그룹 4.09점, 3그룹 4.14점으로 지원된 사업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사업 효과에 기대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룹간 변화 폭을 살펴보면 1그룹과 2그룹의 기대 효과는 0.6점의 차이를 가지고 2그룹과 3그룹은 0.1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살펴볼 때 마을 정비 및 지원사업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기대도 높아지지만 사업의 개수에 비례하지는 않으며 기대하는 효과 상승치는 둔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1 참조).

Table 8 마을 지원 사업 중복 개수별 기대효과 차이

주민 평가	1그룹 (17개 마을) 1~2개 사업	2그룹 (6개 마을) 3~4개 사업	3그룹 (7개 마을) 5~6개 사업
농산물홍보 판로 확보	4.19	4.83	4.84
농업농촌가치홍보 소비자 교육	3.22	4.00	4.04
인적교류를 통한 지역 애착	3.26	4.17	3.92
숙박음식판매 등 소득 증대	4.40	4.83	4.29
산림을 활용한 소득 증대	3.67	5.00	4.59
귀농귀촌에 의한 인구유입	2.94	3.00	2.71
도시 자본 유치	2.76	2.83	4.14
평균	3.49	4.09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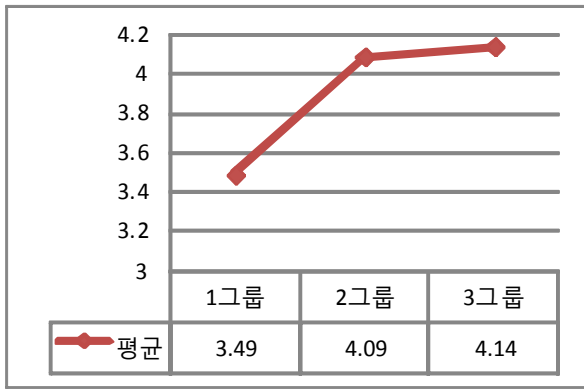


Figure 1 그룹별 기대효과 변화 추이

V. 결 론

2007년 이후 산촌생태마을이 추진된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투자내역에 근거한 유형을 구분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보완 필요 요구와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에 관한 설문을 기초로 유형별 차이점 비교 분석 및 복수로 투자된 마을 정비 및 조성 사업의 개수 차이에 따른 기대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업의 운영·관리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 구분은 사업비 항목별 투자 내역에 근거하여 구분했을 때 산촌체험형(18개 마을), 생활환경 개선형(8개 마을), 산림 소득형(8개 마을)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집단별 평균 분석을 위한 F검증 결과 운영·관리 요구 사항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개발 보완 필요성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산림자원활용 필요성, 자연환경보전 및 난개발 방지 필요성 등도 $p < 0.05$ 수준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으로 얻고 싶은 효과에 대한 7개 항목의 F검증 결과 농산물홍보 및 판매/판로확보와 인적교류를 통한 애향심 고취 등의 2개 항목이 $p < 0.05$ 수준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 외 타부처 마을지원 사업 중복 수혜가 주민들의 마을 발전 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사업의 수가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적은 마을보다는 기대효과는 증가하지만 사업의 개수 증가에 따른 기대효과 상승치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산촌생태마을 사업이 추진된 마을에 투입된 사업비의 유형 따라 주민들

이 운영·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에 있어 프로그램 개발 보완 필요성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산림자원활용 및 자연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향후 기대 효과도 유형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운영·관리 지침 및 산촌생태마을의 운영·관리 방향 수립이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서는 안되며 각 유형별 차이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조성되어 있는 산촌생태마을에 투입된 사업비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차별화된 운영·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산촌생태마을 기대효과에 있어 기대치가 높은 항목들이 직접적인 수입에 집중되고 있는 결과를 볼 때 산촌생태마을 사업이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환경개선에 일정부분 목적을 두고 있었다면 이는 향후 지역의 소득 증대와 관련된 방향으로의 정책적 지원에 더 힘을 쏟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사업후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산촌개발사업에 투입된 사업비의 내용으로 구분되는 산촌생태마을의 유형에 따라 주민들이 운영·관리 측면에서 요구하는 내용 및 사업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산림청에서 추진된 산촌생태마을의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수렴하는 운영·관리 방향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1)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2006년 설계 사업에서 산촌체험 관광사업을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2007년부터 체험시설을 본격적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유형 분류의 내용적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이후 조성된 사업들을 연구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 주2) 산림청이 산촌개발사업 마을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3년 1월 수립한 「산촌개발 사업 마을 운영관리 지침」에서 투입된 사업비의 65%를 기준으로 산촌마을의 운영관리 유형을 본 연구에서 구성한 분류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어 향후 정책방향에서의 활용에 있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체계개발 및 제도개선”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 졌다.

참고문헌

1. 광경호, 서정원, 2011, 산촌생태마을 운영프로그램 실태분석. 『한국산림휴양학회지』, 15(2), 77-84.

2. 김의경, 손호철, 1995, 산촌지역 구분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지』, 84(3), 343-355.
 3. 김종호, 김규현, 이진규, 1997, 우리나라의 산촌지역 구분 조사. 임업연구원.
 4. 김종호, 1998, 산촌개발의 중요도에 의한 산촌마을 구분 및 산촌개발대상지역 우선순위 조사. 『산림과학논문집』, 58, 61-71.
 5. 김종호, 1999, 한국의 산촌지역 구분과 그의 특성에 관한 연구, 『산림휴양연구』, 3(3), 91-101.
 6. 산림청, 2006, 산촌개발사업 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
 7. 산림청, 2010, 산촌생태마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8. 서정원, 김종호, 전준현, 김의경, 안기완, 2006,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산촌진흥계획 방향 정립. 국립산림과학원.
 9. 신용호, 2006, 산촌개발사업 조성이후의 마을시설현황에 따른 주민만족도평가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유병일, 서정원, 김소희, 2003, 전국 산촌 기초조사 보고서, 임업연구원.
 11. 전준현, 유병일, 김종호, 김성일, 오순환, 이덕재, 2008, 산촌체험관광 발전방안. 국립산림과학원.
-
- 접 수 일: (2013년 1월 18일)
수 정 일: (1차: 2013년 2월 22일, 2차: 3월 7일
3차: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13일)
■ 3인 익명 심사필